

전북경제진흥원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음 12월 9일) 제22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발전 공동사업 발굴 '맞손'

시, 국민연금공단 · 농진청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소통 · 협력 강화 간담회 꾸준히 추진
 공공기관 순회 방문 스터디 투어 통해 우수사업 · 정책 배우고 업무교류 통해 사업 발굴키로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들이 전주발전을 이끌 대형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소통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올해 자주 열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가 지역에 경제 · 사회적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와 이곳에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소통 및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전주시는 이곳 공공기관들을 순회 방문 스터디 투어를 할 예정이

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우수사업과 정책을 배우고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신규 ·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이곳 공공기관 기획실장급 간부와의 정기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항 등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연계 협력을 위한 가교와도 같다"며, "정부 동향 공유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연계 협조,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제10기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1일 전주한성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지난해부터 활동해온 우수 기자 14명과 신규 선발된 26명 등 총 40명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중기 ·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돕는다 | 전주시, 중기 3억원 이내 ·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억원(제조업 60억, 소상공인 2억, 청년기업 18억)을 활용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용자를 지원,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용자

한도액은 운전 ·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 · 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 동안이며,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

원 3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평가표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용자금액이 결정된다.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용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리의 용자 지원

을 통해 전주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945)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구 분 | 모집분야 | 자격 조건 |
|-----------|------|-------------------------------------|
| 익산주재기자 0명 | 취재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 · 여 · 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홍역 예방 · 감시 관리 강화

최근 대구 병원 이용 영유아 등 9명 확진 따라

전북도, 도내 보건소 · 의료기관 대상 감시

발열 · 발진 등 의심 증상 있을 시 보건소 신고해야

전북도는 최근 대구에서 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을 위해 도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홍역은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어 전염성이 높은 만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경우 홍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환자감시를 강화하고, 의심증상자 격리 조치 및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과 발열, 발진, 기침 등의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표준접종일표에 따른 MMR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 예방접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전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발진, 발열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난다.

전북에서는 2014~2017년까지 홍역 환자 발생은 없었으며, 2018년 1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북도 공무원교육원 명칭 변경 4면 - 한옥마을 특화 콘텐츠 발굴

2019 평화통일 기원 신년하례회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6시(식전공연 5시 30분)

장소 - 전주 르윈호텔 1층 백제홀

주최 - 전주매일신문,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 JJC지방자치TV 전북본부

주관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

내용 - 도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신년인사

연락처 - 063-223-6138, 236-1221

